



제1차 간호행정 세미나 참석과 가정간호 강 습회를 다녀와서

국립보건원 보건간호과 이 표 회

금번 Manila에서 개최된 서태평양 지역 제 1차 간호사업연구 세미나(The first regional nursing study seminar) 및 덴마크 아호스(Aarhus)에서 열린 가정간호(The home care nursing) 강습회를 참석하고 그 소감을 지면을 통해 여러분들께 다소나마 소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째는 Manila에서 개최한 first regional nursing study seminar에 대한 소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나라를 떠난 것은 7월 30일 그리니까 세미나를 이틀 앞두고 출발했습니다. 떠나기 전 세미나에 참석할 대표(participants)들의 명단을 보니 모두들 경력이 많은 증직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세미나 시작 전에 WHO 마니라 지역사무소에서 자세한 연락서신을 늘 보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제목으로 트의 될 것인지는 어느정도 짐작했었지만 이 같은 세미나에 처음 참석해 보는 저로서는 책임이 무거운 것을 느껴 보았습니다. 보내진 프로그램에 의하면 각 나라의 간호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발표하는 시간이 부여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간호 역사부터 시작하여 간호교육 및 기타 당면한 문제점 등을 자세히 준비했으며 이 세미나가 nursing reserch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필자가 연구조사했던 보건간호원 업무활동연구(nursing activity study in health center)조사재료를 준비해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제가 외국을 여행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기 때문에 여행하는 때에는 빌로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학업연구(study)를 목적으로 가는 것과 좀 다른 성격을 띤 세미나이니 만큼 어떻게 하면 좀 더

한국 간호사업을 소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다만 머리 속에는 그 생각 뿐이었습니다. 한가지 우연한 것은 일본 동경에서 Manila까지 같이 탑승한 일본 친구 두명을 마니라 비행장에서 처음 인사를 교환했습니다. WHO에서 몇번 간호사업에 대한 세미나는 개최했으나 이같이 간호사업 연구에 대한 세미나는 처음이라는 것 입니다. 비행장에 내리니 벌써 WHO에서 사람이 나와 있었고 무사히 예약된 호텔에 갈 수 있었습니다. Manila의 기후는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못 견디게 덥지는 않았으며 1961년도에 제가 인도에 유학했던 시절을 상기 시켰습니다. 즉 야자수며 열대과일 등으로 그야말로 남양의 특이한 풍류가 풍겼습니다. 세미나 첫날에는 웬지 긴장이 되었습니다. 참석 대표는 14명 즉 7개국에서 참석했는데 모두가 명단에 있는 데로 원로급이었습니다. 즉 뉴질랜드, 호주, 마라시아, 싱가포르, 자유중국, 일본, 비올빈, 한국, 그외에 동남아시아에 파견하고 있는 간호전문관(캄보디아 및 싱가포르)들도 Participants로써 참석했습니다.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Dr. I. C. Fang의 환영사를 이어 각 대표의 인사교환이 있었고 WHO건물의 소개가 있는 후 즉시 각 나라 간호사업 소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느낀 것은 그 문제점 등이 각 나라마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간호원 수의 대부족과 사회적인 직위 문제가 아직도 문제화 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매일 8시부터 시작하여 대부분 오전에는 강의와 오후에는 group discussion이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에 책임자들이 Research work에 유명한 분으로써 Dr. Vera Fry-Maillart(간호원임)씨와 WHO 본부 제비바의 간호관, 마니라 서태평양지역의 간호관, 비올빈대학 간호대학 학장, 사회학자등 권위있는 분들을 모시었습니다. 이 nursing reserch가 탄 나라에서도 새로운 분야라는 것을 알았으며 필자가 행한 우리 나라 보건소 보건 간호원의 업무 활동조사는 흥미속한 점은 있어도 그래도 경험을 가지고 참석한 것을 적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세미나의 주제는 말씀드린대로 어느 나라에서든지 문제화 되어 있는 간호원의 대부족을 이러한 과학적인 연구조사로 말미아마 이들 행정사업에 반영시켜서 인사행정(人事行政) 및 간호사업 실무개선을 꾀하자는 것이 이 reserch의 목적인 것입니다. 약 2주일간은 간호원의 직급 및 업무분류를 우리 참석자 자신들이 규정했고 3주제는 마니라 2개병원 외래를 선정하여 5일간 직접 간호원의 업무를 일일히 적어서 이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한 사람이 매 15분마다 8명의 간호원들의 하는 일을 일일히 째라다니며 적는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법 및 분석절

과는 지면관계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reserch를 2개 병원을 통하여 시행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외래(O.P.D.)에서 일하는 간호원들의 대부분이 그들의 시간을 비전문간호사업(non-professional nursing), 즉 예를 들면 청소, 정돈, 물품준비, 기록표준비, 사무업무 등에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미루워 보아 어떻게 하면 전문간호원을 전문간호사업에만 종사케 하느냐 라는 것이 이 reserch를 통하여 연구한 문제인 것입니다. 금번 마니라 2개 병원에서도 이 reserch를 통하여 개선할 문제점 등을 많이 찾아 보았으며 병원 당국자들이 심중히 연구검토중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소개되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가 올바른 인사행정과 부족한 전문간호원들을 원활하게 활용하는 과정으로써는 이러한 실험성있고 과학적인 간호사업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금번 세미나는 꼭 흥미진진 하면서도 힘든 것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밤 10시까지 부여된 과제로서의 하느라고 진담을 뱉적도 있으나 한달이란 짧은 기간이라도 각계에서의 온정과 서로 헤어질 때의 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9월 12일부터 개최하는 덴마크 가정간호 강습회에 참석키 위하여 세미나 후 약 10일간의 여유가 있었으므로 마니라의 간호대학 보건사회부 및 보건소등을 시찰하였을

니다. 행정부로서는 보건사회부가 보건사업을 관상하고 우리 나라와 같이 간호사업과가 단독 독립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각과마다 전문분야에 nursing consultant들이 있어서 유기적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 4,500명 정도가 보건사회부 산하에 있다 하며 특히 감명적인 것은 어떻게나 전문간호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지 당면한 어려운 문제점 등을 잘 해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올빈의 간호교육 사업은 미국식과 비슷하며 한 예를 든다면 62세의 간호원이 간호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보건간호원 훈련사업을 맡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써 남은 열흘을 보건소에 있어서 훈련사업을 보았습니다. 비올빈 보건사업 조직은 우리나라와 별 차이가 없었으나 특히 인상적인 것은 보건요원들의 훈련사업에 많이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간호학교 학생의 실습은 무엇 보다도 학교측과 보건소 직원과의 긴밀한 연락하에 철저한 훈련을 시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인상적인 것은 세미나 첫날 자기 자기 나라 국기 아래에서 기념촬영을 하던 때입니다. 유난히 우리나라 태극기가 우렐어 보였고 무엇인지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이상 마니라 여행기는 이만하고 다음은 서구 덴마크로 달려 볼까 합니다. 마침 이때 파키스탄의 분쟁이 악화하는 때라 예정대로 떠나지는 못

했으나 그래도 늦지는 않았읍니다. 9월 11일 코펜하겐에 도착하니 오후 7시였읍니다. 날씨는 쌀쌀한 편이어서 Manila에서 부터 의투를 준비하여 갖고 갔기 때문에 불편없이 갈어 입을 수가 있었읍니다. 코펜하겐의 인상은 무엇보다 조용한 도시였으며 깨끗한 것이 마음에 들었읍니다. 이곳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Aarhus로 향하였읍니다. 마침 비행기 안에서 이곳으로 가는 동료 몇 사람을 만나 서로 인사교환을 했읍니다. 이 강습회는 WHO와 덴마크정부의 합동으로 매 2년마다 개최되며 우리 나라에서도 1963년도에 한 사람을 보낸 적이 있었읍니다. 이 강습회는 지역과 정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 구라파, 중동아세아, 극동지역, 아프리카 등 넓은 지역을 상대로 하여 참석했는데 17개국에서 참석했고 그야말로 가지각색의 나라에서 왔었읍니다. 시작 첫날 각기 자기 나라의 의상을 입었는데 우리나라 옷이 가장 절찬을 많이 받아 첫날부터 카메라 세례를 받았읍니다. 이튿날 조간신문에 크게 제 사진이 나와 있음을 알았으며 우리 조국에 깊이 감사를 표했읍니다. 이 신문을 보고 농업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찾아 왔을 때는 한층 감개무량 했읍니다. 강습회는 home care nursing에 관한 것인데 6주 과정으로써 주로 강의 및 group discussion이었으며 하루에 2시간 정도의 강

의가 끝나면 매일마다 다른 과제를 가지고 토의에 들어 갔읍니다. 덴마크의 가정간호 사업은 확고한 조직과 실효성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는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있어 누구나 의료혜택을 받고 투 받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인구 2,500명을 맡고있는 family doctor가 있고 이들과 긴밀한 연관을 맺어 일하는 가정간호원, 보건간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건간호원은 인구 5,000에 한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가정간호사업과 예방사업을 겸하고 있는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러운 것은 교통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점이 며 농촌에 있어서는 보건간호원에게 차 한대씩을 정부에서 제공하고 이들은 어떤 보건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입 의사같이 자기 가정에 사무실을 두고 학교보건까지 맡어 보고 있었읍니다. 가정간호 사업은 의사 가정간호원(4個月 가정간호 훈련을 받았다고 함), 보건간호원, 조력자(helper)들과 team work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간호원의 교육정도는 만 18歲이상 고등학교 졸업자으로써 1년간의 house keeping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지금에 와서는 논의되고 있는데 이 경험은 꼭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간호학교 3년과정을 나온 뒤에 특수전문분야에 종사하고 싶을 때는 post basic course라 하여 보건간호

과정, 간호행정과정, 간호교육 기타 전문 분야에 각각 9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전문분야에서 지도자로서 일 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고 있으며 이 post basic course는 전 Denmark에 일개소밖에 없습니다. 딴 나라같이 학위과정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것 같지는 않았으며 다만 실제적인 간호교육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특히 부러운 것은 덴마크인구 약 500만에 간호 원수가 35,000명이라는 것입니다 (Inactive member까지 포함) 그러니까 인구 270명에 간호원 일명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간호원이 부족하다고 외국간호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때 우리나라 실정과는 너무나 먼 환경에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보건간호원은 전부 Post basic course를 마치었으며 월 300불의 임금과 매년 3년마다 유니폼, 방문가방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보건문제는 이미 전염병은 거의 박멸상태이고 암, 심장병, 노인병이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노년층의 보건문제가 크게 문제화되어 있는데 평균 수명이 75세가 넘는 실정이고 보니 어테를 가나 노인들이 많은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가정간호사업의 역사는 오래이며 법률로써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간호사업의 목적은 크게 나누워 몇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노년층

이 증가하는 이 나라에서는 만성병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만성병 환자를 가정에서 간호하는 것이며 이밖에 병원에서 일적이 퇴원하여 가정간호를 하므로써 그만큼 병원 대침의 여유가 많이 생기고 환자의 정신안정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병원직원과 보건간호원이 긴밀한 연락을 하고 있으며 보통 병원에 보건간호원이 몇명씩 배치되어 퇴원환자의 follow up 지역 보건간호원과의 긴밀한 연락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경제가 안정된 나라이고 보니 각 농촌의 생활이 그야말로 지상천국이며 어느 가정이고 꽃을 사랑하고 꽃으로 온 집안이 덮여 있었었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 젖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광경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이 같이 부유하게 살게된 동기는 우연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첫째 국민성이 근면하고 실제적이며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는 성실한 민족임을 알았습니다. 필자가 여러 사람들 접촉도 해 보았으나 이같이 친절한국민은 없는것 같습니다. 6주동안 각계에서의 친절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덴마크국민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무사히 귀국하게 됨을 여려선배님 동료들께 감사들이면서 다 소나마 우리 나라의 간호사업에 배운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